

양계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양계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랜동안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조직도 필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비 홍보를 비롯해서 계란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한 연구노력 등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데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였다.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우리 업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계업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이 역사적인 양계인의 생산자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 또 아직도 안정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분이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보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소개하여 양계인의 합의된 의견을 정부당국과 소비자에게까지 전하려 한다.

편의상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거출방법 기금의 관리 운영, 생산조절, 공급조절, 소비 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양계 안정기금 절대 필요하다

이 재 근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1. 양계 안정기금의 조성은 절대로 필요하다. 양계협동조합 등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생산과잉시 수매비축, 가공처리의 시설운영,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선전, 생산조절을 위한 조사, 연구, 계란 수출시의 적자보전, 생산 및 경영 기술의 개선에 관한 연구지도, 유통의 개선 등 우리 공통의 사업을 우리들 자신의 돈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양계 경

영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되겠다.

2. 기금 거출방법과 규모는 배합사로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공정하며, 또 징수도 간편하여 소망스러운 방법인 것 같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양계협동조합이 설치된다면 조합부과금의 형식으로 사육수수 비례로 징수할 수 있다.

3. 기금의 관리는 우리 양계인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기관에서 양계인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된 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야 한다.

4. 기금의 운영도 상술한 1, 2, 3항을 포함한 양계안정기금의 부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제정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운영도 물론 상기 기금관리위원회가 관리토록 한다.

5. 계란의 생산조절 방안은 닭은 다산성이며, 아주 적은 자본으로 경영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산과잉의 우려를 지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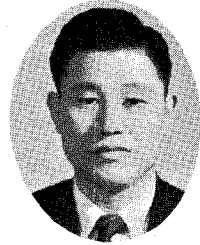
있다. 이제 부터는 알맞은 양을 생산하여 계란양계업의 안정화를 기해야겠다. 계란의 계획생산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0수 규모 이상은 사육수수를 동결하고, 행정당국의 수급추정에 따라 매년 증수한다. 이러한 업무는 각 지역 또는 양계조합에 계란생산 조절위원회를 두어 관장케 한다. 상술한 계란의 계획생산방안은 법률을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지만 당국의 행정지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무단증수자나 신규경영자(2,000수이상)에 대한 제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공급조절방안은 생산과잉시 수매저장, 난가폭등시 방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해야 한다. 계란의 가공저장 및 수출은 시급한 과제이다. 계획생산으로 말미암아 공급부족의 현상이 일어날 경우는 최소량을 수입한다.

7. 소비홍보에 대한 의견 : 코레스테롤과 고혈압에 관한 연구, 한국적 계란요리의 개발, 한약과의 길항성 등 많은 연구비를 기금으로 투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 소비홍보를 해야겠다.

8. 계란 수출에 대하여는 해외시장성의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면 흑자수출을 해야되겠다. 계란 안정기금이 조성된 후라면 잉여량을 수출하여 난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은 선진외국의 예를 본받도록 조사 연구함이 좋을 것 같다.

9.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양계협회등 민간주도형으로 많이 발전해 왔으며 정부당국으로 부터는 거의 무관심의 대접을 받아왔다. 그간 적자생존의 자연선택에 의하여 많은 우리 양계인들의 선배가 무참하게 도태되어 갔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강요당해 왔다. 당국은 이제 우리 양계인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투자로서 위로와 격려를 해야될 체제에 이르렀다. 정부기구내에 양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방황하는 양계업체의 안정적 발전에로의 지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양계인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설 동 섭
(농촌진흥청)



1. 양계 경기의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생산조절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과잉생산이 불가피하여 협조적인 양계농가가 입는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대한 대책에 안정기금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거출 방법이 현재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최선의 방법은 양계생산자 조합을 만들어 모든 양계생산물을 이 조합창고로 유통되어 나가도록 하고 거래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예로 판매 가격의 2.5%씩) 모금하면 된다. 이러한 조직없이도 공정하고 완전한 모금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연간모금액수는 계란에서 120억원 (개당 1원정도 즉 계란값의 2.5%), 브로일러에서 30억원 (수당25원 즉 브로일러 값의 2.5%) 합계 150억원 정도가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3. 기금의 관리는 축협중앙회가 하고 모금과 기금의 사용 결정은 정부와의 협의하에서 양계생산자 조합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

축산진흥 기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축산에 관한 한 기금관리는 축협중앙회가 일괄하는 것이 당연하다.

4. 기금은 잉여 양계 생산물의 출혈수출, 적자 가공보관(브로일러 냉동저장, 계란의 액란 및 난분 가공 저장 등)에서 생기는 적자에 충당해야 하며, 이 기금으로 생산 농가의 직접 보상은 불가능 하다. 그 이유는 직접보

상은 금액이 커서 감당하기 곤란하고 자율적인 조절을 저해하여 과잉생산 상태가 더 장기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자율적인 생산조절은 현재 전업규모 이상의 양계농가가 양계조합에 가입하여 일정한 쿼타제로 조합원이 생산조절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양계업도 부업 규모로는 성립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쿼타제의 운영은 자율적인 생산조절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착상이란 의견도 있겠지만 미국과 같은 무한한 경쟁속에서는 자율적인 생산조절이 있을 수 없고 쿼타제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생산조절에 협조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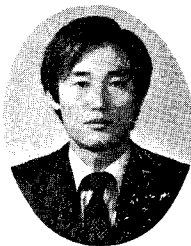
6. 공급조절은 근본적으로 양계조합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계획 생산을 하거나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산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나 완전한 공급조절은 어렵고 현재와 같은 양계불황을 빨리 끝내거나 피해 정도를 완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7.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는 반드시 불황이 왔을 때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매스콤을 통하여 계란과 닭고기의 다량소비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계조합의 이름으로 TV, 라디오를 통하여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가 국민의 영양공급에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점을 선전하고 계란과 닭요리를 개발한 것을 발표하고, 각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리를 발표하는 가정주부에게 상금을 주는 등 조직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8. 계란 수출은 결코 과잉생산량을 처분하는 척 하는 심리적인 효과 밖에는 없음을 지난번 계란 수출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정상적인 계란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액란이나 난분으로

저장했다가 공급부족시 보충하고 저장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잉여가공품 소량만을 출혈수출하고 보상을 양계 안정기금에서 지급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9. 양계인들이 양계산업 발전과 안정에 대해서 평소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하다가 불황이 오면 늘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서로 알면서도 안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양계안정을 위하여 양계인들이 평소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며 누가 할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나 다른 분야 사람들이 결코 발전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이 살려는 행동을 아니하는데 누가 대신 살려 줄 수 있겠는가.



소비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필요

신 홍 종
(고창양계 대표)



1.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계열화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양계인 모두가 뜻을 모아 많은 연구와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양계안정 기금이 충분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산업의 안정은 자본투입이 계속 보장되고 이러한 보장은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여 소비시장에 직결함으로써, 발전과 성장을 지속시키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생산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모든 생산자가 공평하게 거출하는 뜻에서 배합사로 소비량에 기준하여 기금을 거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계사료의 배합사로 연간 소비량 약 200만톤을 기준하여 1kg당 1원씩을 거출시 20억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정도 규모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

3. 대한 양계협회에서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계업자만의 모임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인이 단합하고 상호 발전하는 기반으로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기금은 소비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계산물 가공 및 저장 시설을 지원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소비증대를 위한 거국적인 홍보활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계열화하여 양계산업을 안정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도와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생산촉진을 위한 간접지원 등 직접 생산비가 아닌 곳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5. 현 시점에서 자율적인 생산조절이란 어려운 과제다.

우선은 경제성이 높은 품종으로 권장하고, 소위 왕병아리 등 경제성이 낮은 품종과 무허가 등 부실 부화업자를 강력규제하고 협회 중심으로 정확한 통계에 의한 생산자 스스로가 수요도에 따라 생산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6. 생산자가 양계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과 소비를 계열화하여, 생산공급은 항상 소비시장의 정상수요에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어떤 산업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7. 생산물의 소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홍보 활동 방법에 있어 영세한 양계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가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의 많은 부분을 맡아주어야 하며, 양계인도 스스로 홍보활동의 일부를 맡아 효율적으로 꾸준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8. 계란수출이 적자수출이 아니라면 국가경제를 위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그러나 적자수출은 누군가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내 일부 과잉생산량은 오히려 액란이나 분란 등으로 저장하여 수입되고 있는, 액란이나 분란을 수입억제 시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생산자가 수출적자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우선은 현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인이 단합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집중시키고 안정기금도 하루속히 조성하여 양계산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생산과 소비가 계열화 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계산업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양계인의 단합된 힘으로

계산물 소비홍보 앞장서 불황을 타개하자